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중국과 일본의 전통의복 연구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件 钰钰

문학석사 학위논문

# 중국과 일본의 전통의복 연구

지도교수 신 종 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作 钰钰

오위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위 원 장 문학박사 장 상 언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정 민 (인)

위 원 문학박사 신 중 대 (인)

# 목 차

## \* Abstract

I .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3
3. 연구방법 .....	5
II . 본론 .....	7
제1장. 한푸과 기모노의 변천 .....	7
1. 한푸(漢服)의 변천 .....	7
2. 기모노(和服)의 변천 .....	14
제2장. 당(唐)나라의 영향을 받은 나라(奈良)시대 .....	27

1. 의복문양 .....	27
2. 의복제도.....	30
3. 의복기술.....	32
<b>제3장. 현대 한푸과 기모노의 기능.....</b>	<b>33</b>
1. 예복(礼服).....	35
2. 일상복(常服).....	39
3. 유사점과 차이점.....	43
3.1 민족적 측면.....	43
3.2 지역적 · 역사적 측면.....	44
<b>Ⅲ. 결론 .....</b>	<b>46</b>
<b>참고문헌 .....</b>	<b>48</b>

## 그림 목차

<그림1> 상나라의 한푸 .....	8
<그림2> 곡거(曲裾) 직거(直裾) .....	9
<그림3> 원령포((圓領袍)) .....	10
<그림4> 여자 의복 .....	11
<그림5> 탄령(坦領) .....	11
<그림6> 난삼(襴衫) .....	12
<그림7> 말흉(抹胸) .....	13
<그림8> 입령(立領) .....	13
<그림9> 하피(霞帔) .....	14
<그림10> 배자(褙子) .....	14
<그림11> 횡폭의(橫幅衣) .....	16
<그림12> 관두의(貫頭衣) .....	16
<그림13> 하니와(埴輪) .....	17
<그림14> 나라시대 남자 예복 .....	18
<그림15> 나라시대 여자 예복 .....	18
<그림16> 소쿠타이(束帶).....	22
<그림17> 봉액포 쥘액포 .....	22
<그림18> 주니히토에(十二単).....	23
<그림19> 가리기누(狩衣) .....	24
<그림20> 스이칸(水干) .....	24

<그림21> 히타타레(直垂) .....	24
<그림22> 조닌 (町人)의복 .....	25
<그림23> 당나라의 문양 .....	29
<그림24> 일본의 문양 .....	30
<그림25> 문관과 무관 .....	32
<그림26> 후리소데(振袖) .....	36
<그림27> 도메소데(留袖) .....	36
<그림28> 일본 결혼 예복 .....	37
<그림29> 당제 결혼식 .....	38
<그림30> 송제 결혼식 .....	38
<그림31> 명제 결혼식 .....	39
<그림32> 유카타(浴衣) .....	40
<그림33> 고몬(小紋) .....	40
<그림34> 현대 곡거(曲裾) .....	41
<그림35> 현대 당복(唐装) .....	42
<그림36> 현대 치파오 .....	42

A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Clothing In China And Japan

YuYu-Wu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an indispensable objective material condition in human social life, clothing is also an important embodiment of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Traditional clothing is one of the cultures of a country and a nation, which can intuitively show the characteristics of a country and a nation. China and Japan are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ancient times have prompted the two countries to find similarities in language, Buddhism, clothing and other cultures. This paper focuses on Hanfu and kimono, and summarizes the ancient and modern characteristics by traci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anfu and kimono. Analyze the influence betwee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costumes, so that people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ostumes and face up to their cultural value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의복은 피부를 보호하고 치부를 감추는 중요한 도구로서 현대 인류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습관, 종교적 관념들을 의복으로 표현하면서 의복문화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문명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온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전통 의복은 문명과 진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 및 예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나라의 의복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시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활 수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인류가 처음 의복을 입기 시작한 계기는 여러 설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수단으로서 원시적이지만 나무껍질이나 잎 등으로 몸을 싸서 임시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였다는 기후적응설이다. 둘째, 외부의 자극에 의한 외상의 대비책으로 두꺼운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거나 치장하기 시작했다는 보호설이다. 마지막으로 석기(石器)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서서히 각 종족 간에 차별화되는 의생활이 필요하게 되면서 고대인들은 동물 가죽·보석·수피·깃털 등으로 몸을 보호하고 자신을 더욱 미화하도록 하는 장식설이다<sup>1)</sup>. 이런 과정은 오랜 시간

1) 박진희 (2006) 『FASHION DESIGN』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경우 이외에도 초자연적인 악을 피하고 행운을 바라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보호를 위해 의복을 착용하였다. 또 인간이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신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정숙설이다.

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여 의복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며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 산출물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상징인 민족전통 의복이다. 전통의복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과 역사·전통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영향을 받아 주목받기 쉽고 표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확대되는 ‘서구화’로 인해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복잡한 국제적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는 끊임없이 서로 침투하여 자신들의 경제적·군사적·기술적 이해관계에 의해 전통문화를 잃어버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 부작용의 하나로 현재 중국의 한푸와 일본의 기모노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한푸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한푸와 기모노의 모양이 비슷하고 의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 교류의 영향에 기인한다. 중국과 일본은 광무제(光武帝)부터 문화 교류가 정식으로 이루어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의 교류는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에 파견한 견수사(遣隋使)·견당사(遣唐使)를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당나라는 동서양의 교통로인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서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문화가 들어왔다. 일본은 그러한 당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흡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일본의 문화·예술 및 정치·의복 등은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비슷한 문화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민족적 특성, 역사적 배경, 지역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민

---

그리고 남녀가 서로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는 발생했다는 것으로 성욕설·종족 보존설 등 있다.

족 문화의 발전도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전통의복인 한푸과 일본 전통의복인 기모노의 시대별 특징을 확인하고 이들의 고대의 연관성과 현대까지 계승된 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정치·경제·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국의 전통의복 문화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하며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 서적, 중국의 대표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한푸연구와 기모노연구로 분류하였다.

우선, 한푸에 관한 연구로 정혜문<sup>2)</sup>은 중국 한(漢)·당(唐)·송(宋)·명(明)나라의 여성 전통 한푸의 유형과 특성을 개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 여성의 한푸 스타일까지 분석하였다. 특히 전통 한푸의 활용사례를 범주화해서 현대 한푸의 특성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현대 한푸의 특성을 한·당·송·명을 모방하여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진경옥과 이민정<sup>3)</sup>은 현대 중국인의 전통의복으로 알려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청나라(淸朝)때 서구의 영향을 받은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치파오(旗袍)는 만주족의 전통의복이었는데, 청나라 때 전국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중국 전통의복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2) 정혜문(2002) 학위논문(석사) 「현대 중국여성의 한푸(漢 ) 스타일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3) 진경옥·이민정(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일본·중국의 전통의상을 중심으로」 제5권 제5호 한국인류 사업학회지.

임진<sup>4)</sup>은 중국 영화의 시대극에 등장하는 한푸의 미적 특징을 중국 한족의 전통의복인 한푸의 종류 및 디자인적 요소를 분석하여 한푸 스타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였다.

기모노에 관한 연구로 时安<sup>5)</sup>은 일본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와후쿠의 특징과 무늬가 만들어진 과정을 상세히 살피고 현대 와후쿠의 색채 사용의 특징에 관해서도 논하였다. 또 다양한 각도에서 기모노 색채와 그 의미를 통해 일본의 미적 문화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姜麗<sup>6)</sup>는 기모노의 발전 및 의복 원단의 활용, 공예기술, 그리고 자수(刺绣)예술에 담긴 중국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김화숙<sup>7)</sup>은 기모노라는 복식을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과 관련시켜 어떠한 양상으로 미의식이 투영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일본인의 정서적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적 미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김경진<sup>8)</sup>은 ‘기모노’라는 일본전통 의상의 형태가 확립된 시기인 헤이안(平安)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의 ‘노(能)’와 ‘다도’(茶具), 그리고 ‘무사도’(武士道)의 형식(型)을 통해 각 시대의 미의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주로 중·일 전통의복에 대한 패션문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복의 비교를 일부 중국 전통의복 한푸가 아니라 치파오로 지정하고 있고 한푸와 기모노의 색채나 무늬와 같은 특징의 대표적인 의미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의복의 발전과 민족의 미인식에 대한 연구가

4) 임진(2016) 「중국 시대극 영화의상의 미적 특징을 활용한 한푸(漢 ) 스타일의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회연구』 17권3호, 한국기초조형학회.

5) 时安(2013) 「日本和服色彩研究」 广东工业大学硕士学位论文 10.7666/d.Y2304632.

6) 姜麗(2010) 「和服中的中国元素浅析」 重庆科技学院学报10.3969/j.issn.1673-1999.

7) 김화숙(2008) 학위논문(석사) 「기모노에 내재된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에 관한 고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8) 김경진(2009) 「기모노의 가타(型)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vol.10.no.6 통권3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주를 이루었는데, 필자는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한푸와 기모노의 종류 · 역사적 발전에 관한 인식을 확장할 것이다.

한편 田边草苗<sup>9)</sup>는 중국과 일본전통 의복 문양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당나라와 나라시대의 전통적이면서도 공통된 문양들을 통해 중국의 미술 양식에 대한 개념과 그 영향을 받은 일본 미술 스타일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있다.

陈娜娜·徐方杰·陈嘉毅<sup>10)</sup>는 중국의 시대별 비교와 더불어 각 시대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당·명나라의 한푸를 비교하였다. 한푸의 스타일, 색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당·명나라 한푸의 특징이 현대의 한푸로 재탄생되었다고 하였다.

周鹏程·张春梅<sup>11)</sup>는 중국 청나라의 전통의복인 치파오와 일본 전통의복인 기모노를 도안과 색채를 통해서 양국의 민족성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중국의 한푸와 기모노를 검토·비교하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연구 서적과 논문을 통해 중국 전통의복인 한푸와 일본의 전통의복인 기모노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9) 边草苗(2010)「中日传统服饰图案比较研究」东华大学硕士学位论文.

10) 陈娜娜·徐方杰·陈嘉毅(2015)「汉·唐·明代汉服设计与对比」纺织科技进步 CNKI:SUN:SCFK.

11) 周鹏程·张春梅(2014)「从传统服饰看中日文化的异同」TS941.12 工程科技II辑; 工程科技I辑 轻工业手工业.

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당나라와 나라시대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통의복이 현대에 와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한푸와 기모노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시대별 의복의 특성을 밝히고 의복의 변천에 따른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당나라와 나라(奈良)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양국의 의복문화를 확인하고 상호 영향력에 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현대의 한푸와 기모노 계승 상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전통의복에 대한 기능과 문화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 II. 본론

### 제1장. 한푸과 기모노의 변천

#### 1. 한푸(漢服)의 변천

중국은 한족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8.49% (2018년 기준)<sup>12)</sup>를 차지하고 있으며, 좡족(壯族)·만주족(滿族)·후이족(布依族)·먀오족(瑤族)·몽골족(蒙古族)·조선족(朝鮮族) 등이 있다. 각 민족에 따라 전통의복이 따로 있었으며 한푸(漢服)는 중국 한(漢)족 고유의 의복이다. 한푸는 또 화푸(華服)·한장(漢裝)이라고도 한다. 한족의 개념은 유방(劉邦)<sup>13)</sup>이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다. 한푸는 좁은 의미로는 한(漢)나라의 의복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한푸는 황제(黃帝)<sup>14)</sup>시대부터 청(淸)나라 시대까지 수 천 년 동안의 한족인들이 입던 의복을 지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한푸 개념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주(譙周)가 쓴 『고사고(古史考)』에는 중국의복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다.

12) 중국 통계국.<http://www.stats.gov.cn/ztc/zdtjgz/zgrkpc/dlcrkpc/>.

13) 한(漢)의 제1대 황제(재위 B.C. 202 ~B.C. 195)이다.

14) 중국에서 시조( 祖)로 섬기는 옛날의 전설상의 임금이다.

‘태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슬을 먹었고, 초목의 과실을 먹으며 야생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산에 살면서 새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으며, 의복은 그들의 깃털과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고, 그들의 피를 마시며 풀과 짐승의 털을 덮고 생활을 하였다’<sup>15)</sup>

사회적 생산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그 당시 중국의 조상들은 심한 추위를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주로 나무·풀·나뭇잎과 동물 모피 등을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중국 하남성(河南省)의 안양(安阳)에 있는 은허(殷墟) 부호묘(婦好墓)의 출토품을 살펴보면 상(商)나라<sup>16)</sup> 한푸의 상의하상(上衣下裳) 즉 상의와 치마의 기본 구조와 저고리의 오른쪽으로 덮은 쇄의 양식인 우임교령(右衽交領)<그림1> 특징이 나타난다.<sup>17)</sup>



<그림1> 상나라의 한푸

(출처 : <https://image.baidu.com> )

이와 같은 특징은 석기시대에 비해 섬유기술이 개선되고 직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나라 때는 의복의

15) 古之初，人吮露精，食草木实，穴居野处。山居则食鸟兽，衣其羽皮，饮血茹毛。

16) 기원전 1600년경 ~ 기원전 1046년경 존재한 나라였다.

17) 沈從文(2018) 『中国古代服飾研究』 中信出版社出版,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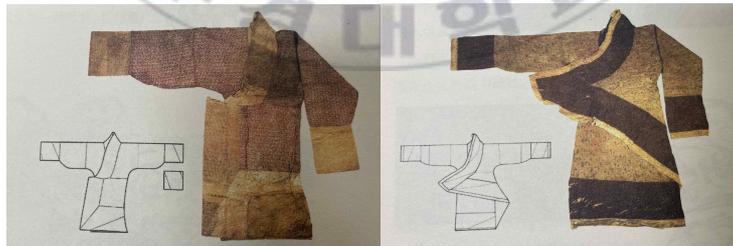
복부 앞에 앞치마인 폐슬(蔽膝)이 있고 폐슬의 재질·색상·무늬에 따라 신분을 구분할 수 있었다.<sup>18)</sup> 은허 부호묘에서는 노예를 순장(殉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복을 통해 당시의 사회가 노예사회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 이후 주(周)나라 때는 새로운 의복인 심의(深衣)가 나타났다.<sup>19)</sup> 심의는 상의와 하의(裳)를 따로 재단하지만, 서로 연결되어있으며 처음에 심의는 곡거(曲裾)<그림2>의 한 종류였지만, 한나라 이후는 직거(直裾)라는 새로운 형태가 추가되었다. <sup>20)</sup>

중국의 역사에서 주나라는 전기 서주(西周)와 후기 동주(东周)로 구분된다. 동주의 왕권이 약화하면서 다른 제후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7국<sup>21)</sup>으로 분열되었고 유가(儒家)·묵가(墨家)·도가(道家) 등 중국의 사상(思想)들이 발전한 시대였다. 이때 왕권의 분열과 다양한 사상의 출현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의복에서도 새로운 옷차림을 추구하게 되어 심의가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림2> 곡거(曲裾)

직거(直裾)



(출처 : 『中国服飾史』 p.56)

18) 従文(2018) 앞의 책, p.16.

19) 孙机(2016) 『华夏衣冠』 上海古籍出版社, p.21.

20) 沈従文(2018) 앞의 책, p.54.

21) 진(秦)·초(楚)·제(齊)·연(燕)·한(韓)·위(魏)·조(趙)

중국의 의복사(衣服史)를 보면, 의복은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난 시대는 당나라다. 이 시대에 의복이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나라가 중국 역사상 정치·경제적인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의 화려한 봉건사회의 전성기였고, 이전의 혼란스러운 분열 시대가 끝나고 무역 거래의 발전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가 평화와 안보가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의복도 다시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당나라 의복의 변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남자는 좁은 소매로 된 원령포(圓領袍)<그림3>를 입었고, 여자는 상의인 유(襦)와 하의인 장군(裙)의 겹에 반비(半臂)를 덧입거나 피백(披帛)을 걸치는 양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22) <그림4>

<그림3> 원령포(圓領袍)



(출처 :<http://www.qulishi.com>)

<그림4> 여자 의복



(출처 : <https://baijiahao.baidu.com>)

22) 従文(2018) 앞의 책, p,80.

그리고 이 시대에 여자 허리는 가슴라인까지 올라가고 가슴을 노출하는 탄령(坦領)<그림5><sup>23)</sup>과, 여성들이 남성의 의복을 입는 유니섹스(unisex) 스타일의 독특한 특징도 나타난다.<sup>24)</sup>

이처럼 당나라 때에 여성의 의복에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여자 황제 무측천(武则天)과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측천은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자 황제로 무측천의 즉위로 인해 동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 탄령



(출처 : <https://image.baidu.com>)

그 후에 송나라는 산업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농업과 수공업 산업도 성장하여 한푸 제조 산업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이때 송나라는 여러 나라와의 교류도 빈번하여 일본·한국·인도 같은 국가들과 무역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교류는 의복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송나라 의복은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했지만, 전통의복으로서의 한푸의 특성을 유지한 시대였다.

이 시점에서, 당나라의 화려한 스타일은 점차 없어지고 가슴까지 올라간 군이 다시 허리로 되돌아가고 의복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였다. 남자들은

23) 従文(2018) 앞의 책, p,86.

24) 孙机(2016) 앞의 책, p,113.

난삼(襜衫)<그림6>을 입었는데, 난삼은 당나라부터 있었던 의복이지만 송나라에 와서야 유행되었다. 형태는 옷깃이 원형이고 소매는 넓으며 옆과 아래에는 선이 있었는데, 이를 횡난(橫襜)이라고 불렀다.

<그림6> 난삼(襜衫)



(출처 : <https://baike.baidu.com>)

이 시대에 가슴과 사이에 몸에 꼭 붙게 입는 작은 옷인 말흉(抹胸)을 입기 시작하였다. <그림7>

<그림7> 말흉(抹胸)



(출처 : <https://baike.baidu.com>)

송나라 후에 명(明)나라는 한족이 세운 마지막 봉건국가이자 한푸를 입

은 마지막 나라이기도 하다. 명나라에 의복의 형태는 당나라의 원령복과 비슷한 포를 입었지만 특별한 입령(立領)<그림8>이 나타났다. 25)

여성들은 주로 소매가 달린 삼(衫)을 입었고, 넓은 끈을 양 어깨에 걸쳐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하피(霞帔)<그림9>를 입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소매가 달린 긴 옷으로 저고리에 덧입는 겹옷인 배자(褙子)<그림 10>가 남녀 공용의복으로 크게 유행하였다.26)

<그림8> 입령(立領)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림9> 하피(霞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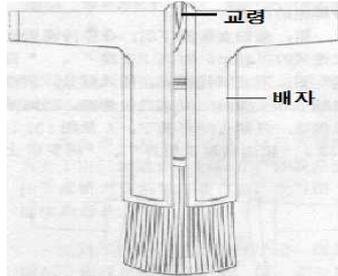


(출처 : <https://baike.baidu.com>)

25) 红梅(2012) 「立領的变化」 纺织导报, pp,91-92.

26) 沈從文(2018) 앞의 책, p,132.

<그림10> 배자(褙子)



(출처 : <https://baike.baidu.com>)

명나라 이후 청나라는 의복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대이다. 이는 만주족과 한족 문화가 혼합한 이유가 가장 컸다. 1645년 8월 29일 청나라 만주족 정부가 한족인에게 “시민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옷은 현지 제도에 맞춰야한다”며 변발령(弁髮令)을 내렸다. 그 명령에 따라 한족인들의 의복은 만주인이 입는 의복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풍속도 만주족의 것을 따르게 되었으며 한푸는 거의 사라졌다.

중국 전통의복의 발전 역사를 정리하면 상나라때 처음으로 한푸의 특징이 나타나고 주나라부터 사상을 풍부해지면서 한푸도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 그 이후 한푸는 계속 발전하지만 중국의 전성기인 당나라때 종류와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명나라까지 영향을 주었고, 청나라 이후 변발령으로 인해 한푸는 중국의 의복사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 2. 기모노(和服)의 변천

기모노(着物)는 ‘입는 옷’ 또는 모든 ‘일본 전통의복’을 의미하고 와후쿠

(和服)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복식사 학자인 고이케 미쓰에(小池三枝)는 기모노가 원래 ‘입는 것’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옷’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막부(幕府)말기(1853~1868)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양복과 기존에 입던 일본 전통의복을 구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일본 옷을 와후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모노는 와후쿠를 가리킨다.

현대 일본 기모노의 발전은 기원전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伝)』에<sup>27)</sup>는

‘남자는 넓은 천을 연결하여 묶어 놓았을 뿐 바느질은 하지 않았다. 부인들은 홑겹의 천으로 옷을 지어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넣어 입었다.’<sup>28)</sup>

이것이 야요이(弥生)시대에 등장한 일본 초기의 의복인 횡폭의(横幅衣) <그림11>와 관두의(貫頭衣)<그림12>이다.<sup>29)</sup>

<그림11> 횡폭의(横幅衣)



(출처: 『日本服飾史男性編』 pp.16-17)

27) 류은주(2003) 『모발학 사진』 광문각.

중국 진( )나라 초기에 진수(陳壽)가 엮은 사서(史書) 『삼국지(三国志)』의 한 부분. 『삼국지』는 『위지』 30권 · 『촉지(蜀志)』 · 15권 『오지(吳志)』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위지』 30권 중에 『동이전(東夷伝)』이 들어 있다.

28) 男子皆露紵、以木絲頭。其衣横幅、但結束相連、略無縫。婦人被髮屈紵、作衣如單被、穿其中央、貫頭衣之。

29) 崔蕾(2001) 「中日文化交流看中国服飾对日本服飾的影響」西北纺织工学院学报, p.2.

<그림12> 관두의(貫頭衣)



(출처: 『日本服飾史女性編』 pp.16-17)

그 이후 6-7세기 고분(古墳)시대<sup>30)</sup>는 하니와(埴輪)<sup>31)</sup>를 <그림13> 통해 일본의 의복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의는 통수(筒袖) 모양의 의(衣)를 입었고 하의는 훈도시(褌)를 입는 기누하카마(衣褌)의<sup>32)</sup> 모습이다.

당시 중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오나라<sup>33)</sup>(吳国)는 일본과 인접하여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오나라의 섬유뿐 아니라 섬유 기술·염색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고후쿠(呉服)라는 명칭도 생겨나게 된다.<sup>34)</sup>

30) 일본의 시대 구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서기 250년~538년 정도를 가리키지만 아스카( 阿)시대 초반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31)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의 일종으로 갖가지 인물이나 동물·기물(器物) 등을 만들어 거대한 봉토분 주변에 둘러놓은 것으로, 일본의 고분(古墳)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다.

32) 高桥健自(2016) 『図説日本服飾史』 清华大学出版社, p.10.

33) 중국 삼국시대(三国时代) 손권(229~280)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성립된 왕조이다.

34) 时安(2013) 「日本和服色彩研究, p.7.

<그림13> 하니와(埴輪)



(출처 : 『図説日本服飾』 p.10)

고분시대 후에 나라시대는 중국의 수나라(隋朝)와 당나라(唐朝)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일본은 이때 중국과 수시로 교류하였는데, 기술과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신을 중국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와 의복문화를 전파하기도 하였고 중국의 의복제도 시행하였다.

당시 중국의 의복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를 단순히 양국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과론적인 논법으로 설명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은 당나라의 율령제도를 받아들여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천황은 아스카-나라시대에는 고대 중국에서 이상으로 생각한 율령제에 기반을 둔 ‘왕토왕민王土王民’ 또는 ‘왕토신민王土王臣’을 구현화(具現化)시키려는 통치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왕토왕민王土王民’ 또는 ‘왕토신민王土王臣’은 ‘토지와 백성은 왕의 지배하에 둔다’는 이념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지배를 누수 없이 실시하기 위하여 고도의 체계적인 법령, 즉 율령과 격식(格式)이 편찬되고, 이 율령과 격식에 기반을 둔 세밀한 관료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관료기구는 ‘왕토왕민’이념에 의거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권력 장치였다.

그래서 나라시대의 의복제도는 당나라 의복을 받아들이고 의복의 등급화가 나타난 점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15 참조>

일본은 당시의 중국 의복제도를 모방하면서 직물 종류와 염색방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물 무늬나 모양 등은 당나라 분위기를 풍겼다.

<그림14> 나라시대 남자 예복



(출처: 『日本服飾史男性編』 pp.36-37)

<그림15> 나라시대 여자 예복



(출처: 『日本服飾史女性編』 pp.32-33)

중일문화교류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라-헤이안시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대륙문화를 일본의 풍토와 관습에 맞게 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9세기 중기부터 나타나, 894년 견당사(遣唐使)가 폐지된 이후에 그런 노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헤이안시대가 되면서 가

속화되어 셋칸(撰闕)정치 시기에 그 기초가 만들어진다.

일본은 7세기부터 한반도와 중국의 우수한 문물·사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일본과 한반도,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변화한 9~10세기에는 당시까지 도입한 대륙문화를 일본의 풍토·사상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문학과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문화현상들이 나타났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전 시대의 신불습합(神仏習合) 사상이 더 널리 전파되어 교세를 확장하였으며, 정토교(淨土教)가 발전하면서 불교도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적 불교에서 일반 백성들이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민중불교로 변모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중국 당 문화의 영향이 줄어들고, 자연환경이나 일본적 취향을 반영한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문화를 일본의 고유문화라는 의미의 국풍문화(國風文化)라 부른다.

이에 따라 불교와 재래신앙인 신도의 융합인 신불습합이 가속화되었고, 일본의 독특한 관습이 만들어지고, 일본식 주택인 귀족들의 신덴즈쿠리(寢殿造)가 발달하였다. 또한 일본의 자연환경과 풍속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일본의 문자인 가나(仮名)도 이 시기에 만들어져 가나로 쓴 문학작품이 많이 나왔다.

한자를 변형하여 만든 히라가나(平仮名)와 가타카나(カタカナ)는 11세기 초에 글자체가 대부분 정형화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 특유의 사고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한시문(漢詩文) 대신에 가나를 사용한 시가 발달했다.

9세기 후반에는 이미 와카(和歌)를 훌륭하게 담아내는 가인(歌人)들이 출현하였으며, 궁중에서 와카는 사교모임에 빠질 수 없는 오락이 되었다. 10세기 초에는 기노 쓰라유키(紀貫之) 등이 칙명을 받아 최초의 칙찬가(勅撰)인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를 편찬하였다. 『만요슈』(万葉集)에

비하여 기교가 뛰어나며, 우아한 그 가풍(歌風)은 와카의 전통으로 자리하면서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와카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창작 산문문학인 모노가타리(物語)와 일기도 발달하였다. 전설을 소재로 한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는 모노가타리 문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기 형식을 빌려 기록한 『도사닛기』(土佐日記)는 와카를 잘 짓는 기노 쓰라유키의 작품이다.

후지와라 씨에 의한 외척정치인 셋칸정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 시대에 귀족들의 생활과 감정을 묘사한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궁중생활의 체험을 기록한 세이 쇼나곤(清少納言)의 수필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등이 이 시기의 문학작품으로 유명하며, 일본 고대문학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문학작품의 특징은 작가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귀족은 딸의 교육에 신경을 썼다. 상급귀족은 천황의 외척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자 했고, 중하급 귀족은 상급 귀족과 친척 관계를 맺어서 그 인연으로 출세를 꾀하였다. 좋은 가정교사를 채용해서 와카, 서도(書道), 고토 췌 등에 능한 숙녀로 키워 천황이나 황태자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는 당시 중류 귀족들이 경쟁적으로 딸을 교양인으로 키워, 권력자인 후지와라 씨의 딸이 궁으로 들어갈 때 그 도우미로 함께 들여보내 후지와라 씨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에서도 국풍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귀족들의 저택 건축양식인 신덴즈쿠리는 자연의 경관을 재현한 정원과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일본적인 건축양식이다.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 병풍, 후스마에(襖繪), 당풍의 그림 대신 일본의 사계(四季)와 명소를 주제로 한 야마토에(大和繪)를 은은한 곡선과 색채로 그려 넣었다.

당시 귀족들의 생활은 두루마리그림인 에마키모노(繪卷物)에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인 것으로는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繪卷)가 있다. 신덴에 딸린 작은 방에 천황과 황태자가 앉아 있으며, 귀족들이 정식 예복인 소쿠타이(束帶)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상의 천을 난간에 걸쳐 놓고 있다. 연못에는 용머리 장식을 한 배가 떠있고, 건물 앞 정원에서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일상생활 장소였던 신덴즈쿠리 저택은 넓은 정원에 인공으로 산을 만들고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는 등 야외에서의 놀이도 활발하게 행하였다.<sup>35)</sup>

이처럼 헤이안(平安)시대는 귀족문화가 발달하면서 당나라 문화의 흔적을 없애고 일본적인 독자적인 의복의 형태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남자에복차림의 소쿠타이(束帶) <그림16>과 여자 의복인 주니히토에(十二單)의 등장이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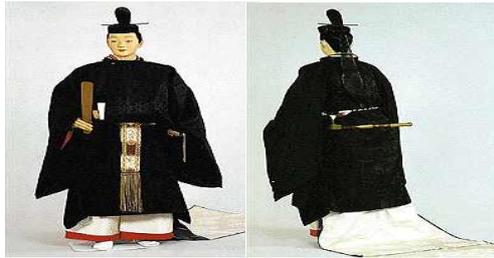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독자적인 의복이 나오게 된 이유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sup>37)</sup>의 건의로 견당사 제도가 폐지되어 활발했던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일본의 의복에서 중국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의복 관련 기술도 발전해 간다. 문양의 인쇄 및 염색 기술의 향상으로 의복의 색상도 다양해졌으며 소매는 더 넓어지고 전체 스타일은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졌다고 할 수 있다.

35) 이영·재석(2010) 『일본고중세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p,192-195.

36) 桥健自(2016) 앞의 책, pp80-81.

37) 헤이안 시대의 귀족이자 학자, 한시인(漢詩人), 정치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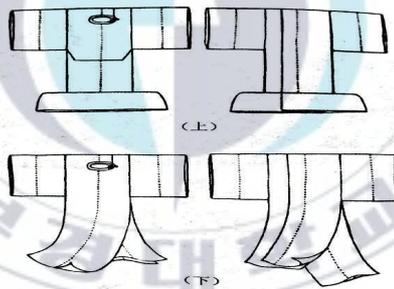
<그림16> 소쿠타이(束帶)



(출처 : 『日本服飾史 男性編』 pp.56-57)

그리고 소쿠타이는 문관과 무관에 따라 걸옷인 포(袍)의 차이가 있다. 문관은 봉액포(縫腋袍)를 입고 무관은 꺾액포(闕腋袍)<그림17>를 입는다.<sup>38)</sup>

<그림17> 봉액포(上) 꺾액포(下)



(출처: 『図説日本服飾』 p.94)

귀족 여성들의 대표적인 의복인 주니히토에(十二単) <그림18>는 가라기누모(唐衣裳)라고도 불렀는데 많은 옷을 겹쳐 입는 예복이다. 기본 8겹에서 신분이 높아질수록 25겹까지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9)</sup>

38) 桥健自(2016) 앞의 책, p.94.

39) 高桥健自(2016) 앞의 책, pp.82-83.

<그림18> 주니히토에(十二単)



(출처 : 『日本服飾史 女性編』 pp.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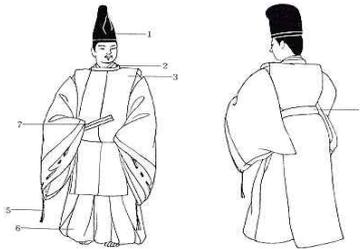
국풍문화를 주도했던 헤이안 귀족들의 화려했던 생활도 헤이안 말기, 무사계급이 성장하고 귀족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급기야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가 전국의 겐지(源氏) 무사, 지방의 무사단(武士團)을 규합하여 헤이지(平氏)정권에 항쟁하면서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열게 되면서 활동적이면서 힘이 넘치는 무사문화가 시작된다.

가마쿠라시대의 기모노는 화려한 스타일을 추구했던 헤이안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정제되고 단순한 실용성과 소박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무사계급의 성장은 그들의 의복에도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격이 높아졌다.

스쿠타이는 조정의 의식이 있을 때 막부의 쇼군(將軍)과 상급 무사의 최고 예복으로 정해졌고, 가리기누(狩衣)<그림19>와 스이칸(水干)<그림20>은 일반적인 무사의 예장이며 이전 시대의 잠옷이었던 히타타레(直垂)<그림21>는 가마쿠라시대에 무사의 평상복이 되었다.<sup>40)</sup>

40) 桥健自(2016) 앞의 책, pp,194-195.

<그림19> 가리기누(狩衣)



(출처 : <https://image.baidu.com> )

<그림20> 스이칸(水干)



(출처 : <https://terms.naver.com> )

<그림21> 히타타레(直垂)



(출처 : 『日本服飾史 男性編』 pp.132-133)

가마쿠라시대 다음에 오는 무로마치(室町)시대는 이미 유행하고 있던 소쿠타이를 그대로 입었지만 기모노에 가문(家紋)<sup>41)</sup>이 새겨진 점은 이 시대 의복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각 가문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는 약 20,000개 정도였다. 전쟁과 정치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신속하게 적을 식별할 필요가 있어서 무기·마차·전쟁 깃발에 가문이 있어야 했으며 평소에 입는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에도 가문이 새겨져 있었다.<sup>42)</sup> 이처럼 의복의 가문은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도(江戸)시대는 일본의 막부 통치의 마지막 시대였다. 이 시대는 상업이 번성하고 서민 문화가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전 시대들과 비교해서 계급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울러 도시인 조카마치(城下町)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조닌(町人)이라고 불렀다.<sup>43)</sup>

조닌은 피지배계급이었지만 독특한 의복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가장 안쪽에 고소데를 입고 겉옷인 하오리(羽織)를 입었다.<그림22>

<그림22> 조닌 (町人)의복



(출처 : 『日本服飾史 男性編』 pp.202-203)

41) 옷감을 염색할 때 바탕에 흰색을 남겨서 만들며 기쿠토지를 달아 장식하였다.

42) 安((2013) 「日本和服色彩研究, p.13.

43) 王聡(2006) 「近世日本町人与町人文化的特征考察」 p.2.

여성 기모노에서는 고소데가 완전한 겉옷으로 변해 정장으로 변모하였고, 현대 기모노의 원형이 되었다.

일본 기모노의 발전이 정리하면 야요이시대 단순하고 소박했던 일본인의 의복은 나라시대에 한푸를 거쳐 중국풍 의복이 유행하였고, 헤이안시대 당나라의 의복에 대한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일본의 독특한 의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마쿠라시대에는 예복뿐만 아니라 무사와 관련된 비교적 간소화된 일상복이 점차 발전했으며 에도시대까지 현대 기모노의 양식을 잡았다.



## 제2장. 당(唐)나라의 영향을 받은 나라(奈良)시대

중국 당나라는 경제와 문화의 전성기였던 만큼 의복문화가 역사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완성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발전된 의복문화는 주변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은 아스카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양국의 교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의복문화도 함께 발전하였다. 당시 견수사나 견당사 파견의 주목적은 중국의 선진 정치체제인 율령·문화·문물, 특히 학문과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인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의복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인 중국의 당나라와 일본의 나라시대의 의복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의복문화의 발전은 물론이고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복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복문양

의복의 문양은 각 시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당나라의 의복문양은 연주문(連珠纹)·단과문(團窠纹)·보상화문(宝相花纹)·무단문(牡丹纹) 등으로 이루어졌다.<sup>44)</sup> 연주문은 주로 말·사자·원앙(鴛鴦)·봉황(鳳凰)과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디자인하였고 문양은 대부분 원형과 곡선형이었으며 이미지는 추상적인 것이 많았다. 단과문은 주로 화초와 나무로 디자인되었는데 꽃잎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상화문은 주로 연을 디

44) 忠 (2010) 「试论唐、日服飾文化的特点及其交流」, p.7.

자인 하였고 성결하고 성스러운 뜻이 담겨있다. 무단문은 부귀와 길상의 뜻을 가진다. 또한 자수기법이 발전하면서 의복 원단에 백조조봉(百鳥朝鳳)·모란(牡丹)·공작(孔雀) 등으로 장식하고 의복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였다. 일본의 기모노는 당나라의 의복을 참고하여 형식에 변화를 주기도 하면서 일부 도안을 옷감과 의복에 적용하였다. 문양은 당나라와 다르게 주로 매화(梅)·앵두(桜)·덩굴(藤)·국화(菊)와 같은 식물이나 용(龍)·봉황(鳳)·새(鳥)·물고기(魚)·귀갑문(龜甲紋)처럼 동물 문양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경치를 이용한 민족감이 표현되면서 발전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문양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벚꽃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동나무는 장수, 석류는 자손이 많은 것을 상징한다. 이처럼 일본의 문양은 자연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가문(家紋)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가문은 가족을 상징한다.<sup>45)</sup> 가문은 가족 의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제약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통 의복에 그려져 있는 가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행동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며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 이는 일본의 강한 가족의식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본인들이 가문을 통해 가문의 품격을 중요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은 현대까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본의 문화가 되었으며 기모노에도 신분·연령·계절에 따라 문양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고 있다.

---

45) 俠(2008) 「浅谈家徽与日本文化」, p.329.

<그림23> 당나라의 문양

연주문(連珠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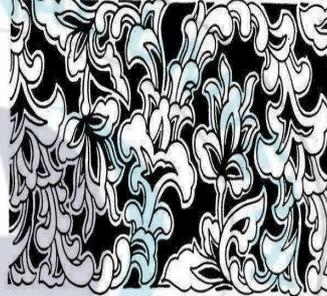
단과문(團窠紋),



보상화문(寶相花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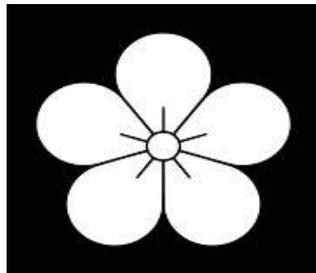
무단문(牡丹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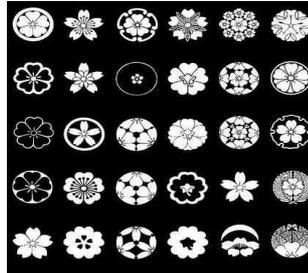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림24> 일본의 문양

매화(梅)



앵두(桜)



귀갑문(龜甲紋)

덩굴(藤)



(출처 : <https://baike.baidu.com>)

## 2. 의복제도

고대 의복은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였던 까닭에 통치자들은 의복을 항상 중시해왔다. 당나라의 당고조(唐高祖) 이원(李淵)이 624년에 제정한 무덕령(武德令)을 보면 각 계급의 의복 착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다.<sup>46)</sup> 일본은 이를 모방하여 문무(文武)천황이 710년에 다이호 율령(大宝律令)을 제정하였고, 나라(奈良)시대의 겐쇼(元正)천황도 당나라를 모방하여 718년에 다이호 율령을 수정한 요로(養老) 율령의 일부분인 의복령(衣服令)을 예복(禮服)·조복(朝服)·제복(制服)으로 새롭게 바꾸었다<sup>47)</sup>. 이와 같은 의복령을 통해 양국의 관리들의 의복 색상은 자색(紫)·붉은색(緋)·녹색(綠)·파란색(藍) 4가지로 나누어진다. 색상에 있어서는 양국의 규정이 거의 같지만, 문관과 무관의 의복에 대한 규정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46) 徒文(2018) 앞의 책, p,76.

47) 高桥健自(2016) 앞의 책, p,48

[표1] <제도에 따라 당나라와 나라시대 관리의 의복색상 비교>

시대 관직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唐	紫	紫	紫	深緋	淺緋	深綠	淺綠	深靑	淺靑
奈良	深紫	淺紫	淺紫	深緋	淺緋	深綠	淺綠	深藍	淺藍

당나라의 의복제도에는 관원들 대부분이 좁은 소매로 구성된 원령포를 입었다. 조정에서는 문무관의 관직에 따라 원령포의 길이가 달랐는데 문관은 발끝까지 무관은 무릎 아래까지였다.

이 영향을 받은 나라시대의 관리들은 곁액포(闕腋袍)를 입었는데 포의 하단이 무관보다 문관이 길었다. 이를 난(襪)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나라의 의복제도를 수용을 통해 일본의 의복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림23 참조>

당나라와 일본의 교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중국의복을 모방하고 수용하게 된 것은 지배자에 의해 시작된 정치개혁이라는 정치적 전환을 빼놓을 수 없다. 의복은 지위와 신분을 구별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었고 이는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봉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림25> 문관과 무관의 의복



<문관>

<무관>

(출처 : 『日本服飾史 男性編』 pp.38-39)

### 3. 의복기술

일본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옷을 재단하고 바느질하는 여공을 초빙하는 등의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당나라는 일본의 견당사와 승려에게 매년 실크(糸綢)와 사계절 의복을 증정하면서 격려했다. 이 유학생이나 승려들은 일본으로 대량의 견직물(糸織物)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일본의 정창원(正倉院) 안에는 당시 당나라가 전달했던 각종 화려한 비단(緋緞)과 라란(蜡纈)·가지에(夹纈) 등 진귀한 직물들이 소장되어 있다.<sup>48)</sup> 『정삼창원간』(正三倉院刊) 따르면 당나라 때 고급스러운 직물을 운반하여 일본의 실크, 표류 인쇄기술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기록되어있다. 그 때문에 현재 일본 방직염색기술 서적에는 당시 당나라 한자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한다.

48) 梅(2006) 『衣装日本』天津人民出版社, pp.32-33.

### 제3장. 현대 한푸와 기모노의 기능

고대부터 근대까지 역사의 변천을 거쳐 온 기모노는 현대에 접어들어서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변화하였다. 그 변화는 대부분 무늬와 색채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기모노 양식이라든지 착용하는 장소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의복기술·방직방법·염색방법 또는 제작방법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기모노는 전통의복으로서 기능도 확장하였다. 고대보다 서양 문화를 더 많이 수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일본인들은 일상 생활은 물론 공식적인 장소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양식의 기모노를 입는다.

반면에 일본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실제로 전통적인 의복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민족별·시대별 전통의복이 존재하다 보니 하나로 통일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한푸는 기모노만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하지만 2003년 11월 22일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왕레티(王樂天)이라는 일반인이 한푸를 입고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푸를 알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한푸를 입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한푸의 전시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중국의 ‘한푸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그 이후로 한푸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11월 22일을 ‘한푸 출행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전통의상 한푸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한푸부흥운동은 전부터 있었다. 청(淸)나라 멸망 이후인 중화민국 북양정부(北洋政府)<sup>49</sup>때 한푸를 복원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 차례 진

49) 중화민국(華民國)은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성공으로 1912년 1월 쑨원(孫文)의 삼민주

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신문화 운동(新文化運動)<sup>50)</sup>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은 한푸의 복원을 비판하였다.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한푸가 옛 문화를 대표하고 봉건사회가 남긴 유물이라고 믿었다.

이후에 2002년 국력이 급성장하고 일부 중국 시민들의 전통문화 의식이 각성되면서 한푸 애호가들이 인터넷을 주요 여론 플랫폼으로 하여 중국 본토에서 한푸 전통을 회복시키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한푸는 끊임없이 진화과정을 거쳐 왔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거듭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사람들은 한푸의 부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한푸를 계승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해왔지만, 한푸의 고유의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현대의 한푸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의하상·우임교령 등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한푸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2015년 4월 25일에는 중국 청도(靑島)에 한푸 박물관이 개관되기도 하였다.

최근 몇 년에 한푸 애호가의 증가를 불러오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푸를 입기 시작했다. 뉴스에 따르면 2018년 말 중국 한푸 시장의 소비자 인구는 200만 명을 넘었으며, 총 산업 규모는 약 10억 9천만 위안에 달한다. 이는 한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푸 구매 방법이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여 진다.<sup>51)</sup> 현재 복원하여 판매되는 한푸의 양식은 주로 한제(漢

---

의(民主義)를 강령으로 하여 수립된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국가이다.

50) 강상원(2005) 『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1915년 천두슈(陳獨秀)가 창간한 잡지 『신청년』을 중심으로 문학 혁명, 유교 비판, 문자 개혁 등을 주창해서 봉건적이던 지난날 중국의 문화 도덕 윤리를 타파하며, 민주 정신과 과학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制) 한푸·당제(唐制) 한푸·송제(宋制) 한푸·명제(明制)한푸<sup>52)</sup>로 분류되어 있어 상황과 필요에 맞게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한푸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들이용으로 한푸를 빌리기로 한다.

## 1. 예복(礼服)

현대의 일상 기모노는 남녀 구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복과 일상복의 구분, 미혼과 기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그 종류도 많다. 특히 여자의 기모노는 겨드랑이 아래쪽과 소매 안쪽에 트임이 있는데, 미혼 여성과 신부는 넓은 소매의 후리소데(振袖), 결혼 후에는 미혼의 상징인 후리소데의 긴 소매를 자른 도메소데(留袖)를 착용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호몬기(訪問着)·고몬(小紋)과 유카타(浴衣) 등이 있다.

많은 종류 중에서는 예복으로 입는 기모노는 주로 후리소데<그림26>와 도메소데가 있다. 후리소데는 미혼 여성의 제1정장이며 소매의 길이에 따라 오후리소데(大振袖)·주후리소데(中振袖)·고후리소데(小振袖)의 세 가지가 있다. 도메소데(留袖)는 기혼자의 제1정장으로 구로토메소데(黒留袖)와 이로토메소데(色留袖)<그림27>두 종류가 있다. 현대에서 주로 결혼식·하츠모우데(初詣)·피로연에 참석하는 등을 할 때 차려입는다.

51) 중국 통계국.<http://www.stats.gov.cn/zjtj/zdtjgz/zgrkpc/dlcrkpc/>.

52) 정혜문(2002) 「현대 중국여성의 한푸(漢) 스타일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그림26> 후리소데



오후리소데(大振袖)

주후리소데(中振袖)

고후리소데(小振袖)

(출처 : <https://image.baidu.com>)

<그림27> 도메소데



구로토메소데(黒留袖)

이로 토메소데(色留袖)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리고 시로무쿠(白無垢)는 현대에서 일본의 전통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기모노의 대표적인 예복이다. 시로무쿠는 새하얀 우치카케(打掛) 및 오비(帯)<sup>53)</sup> 등 부속품도 전부 흰색으로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에는 ‘츠

<sup>53)</sup> 전통적인 기모노와 함께 착용하는 긴 장식 천을 말한다.

노카쿠시(角隠し)와 ‘와타보우시(綿帽子)’를 쓴다.<sup>54)</sup> 고대부터 일본에서는 흰색을 태양의 색으로 신성하고 청정한 그리고 순수함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왔다. 그런 이유로 출산·장례·할복할 때도 흰색을 입었다.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는 무사의 가정에서 신부가 흰 기모노를 입고 결혼했으며 그 문화는 에도(江戸)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메이지(明治)시대부터 시로무쿠는 전통 결혼식 때 입는 일반적인 신부의 기모노로 정착되었다. 남성 의복은 검은색의 예복에 5개의 가몬을 사용하게 된다. 가몬의 위치는 의복의 뒷면 중앙에 1개, 뒷면의 왼쪽과 오른쪽 소매에 각각 1개씩, 가슴에 2개가 들어간다.<sup>55)</sup>

<그림28> 일본 결혼 예복



(출처 : <https://www.blog.naver.com> )

다음으로 중국의 전통 결혼식을 통해 살펴본 현대의 예복 한푸의 특징은 대부분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현대 중국 전통 결혼식은 당제, 송제와 명제가 있는데 당제 결혼식에서 여자의 결혼 예복은 초록색이고, 남자는 진홍색이다.<그림29> 송제 결혼식에서 남녀 예복은 먹 같

54) 物 (2008) 「日本人的婚礼」 东北亚外语研究, p.3.

55) 戚物 (2008) 「日本人的婚礼」 东北亚外语研究, p.5.

은 검은색인 현색(玄色)이다.<그림30> 현대 전통 결혼식에서는 당제와 송제보다 남녀 예복이 다 빨간색 된 명제 결혼식이 인기가 있었다. 송제 결혼식이 여자는 예복 하피(霞帔)를, 남자는 명나라 때의 관복을 입었다. <그림21> 결혼식에서는 주로 붉은색의 장식이 많고, 이는 중국에서 붉은색은 행복 · 길조 · 축하의 색으로 행운 · 사랑 · 열정을 의미하고, 축제에 많이 사용되어온 전통적인 색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특징은 의복에는 물에서 노는 원앙의 모습(鴛鴦戲水)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림29> 당제 결혼 예복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림30> 송제 결혼 예복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림31> 명제 결혼 예복



(출처 : <https://baike.baidu.com>)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양국의 예복의 차이는 우선 중국 결혼식에서는 주로 활기차고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붉은색을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신랑과 신부는 격식을 차리고 엄숙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흑과 백의 의복을 착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달리 남자 전통의복에 가문을 넣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2. 일상복(常服)

현대 일본 기모노 일상으로 다 입을 수 있지만 후리소데와 도메소데의 경우 거의 공식적인 장소에서 정장으로 입게 되었으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일상복은 유카타(浴衣)과 고몬(小紋)등 있다.

유카타는 고대에는 유카타비라(湯帷子)<그림32>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목욕한 후에 이 유카타비라를 입었다.<sup>56)</sup>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에서 유카타는 그 기능이 확대되어 젊은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인 일상복이 되기도 한다. 관광지 나들이 의상으로 입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 불꽃놀이를 보면 유카타를 입은 소녀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입을 수 있다 보

56) 安(2013) 「日本和服色彩研究」 广东工业大学硕士学位论文, p,10.

니 앞에 소개한 몇 가지 예복인 기모노의 소재가 대부분 고급 원단을 사용하는데 비해 유카타는 면을 소재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고 시원하고 가볍다. 또한 유카타는 입기 편하고 색상 선택의 폭이 넓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림32> 유카타(浴衣)



(출처 :<https://image.baidu.com>)

고문(小紋)<그림33>은 작은 문양이 들어간 기모노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의 일본인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문양이 반복되는 기모노를 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벼운 외출 등에 사용하는데 무늬의 상하 구분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림33> 고문(小紋)



(출처 : <https://baike.baidu.com/itemn>)

현대 중국 한푸의 대표적인 일상복은 곡거(曲裾)의 심의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외부 활동을 할 때 입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 한푸 애호가들이 즐겨 입는다는 점이 유카타와는 상이하다.

<그림34> 현대 곡거(曲裾)



(출처 : <https://baike.baidu.com>)

그런데 현대 심의보다는 당복(唐装)<그림35>과 치파오(旗袍)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 많은 사람은 현대의 당복과 치파오가 중국의 전통의복의 일상복이라고 생각한다. 당복은 만주 의복이며 만주 의상의 많은 특성을 흡수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의상으로 탈바꿈하였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당복은 일반적인 중국 스타일의 의복을 말한다.

치파오의 기원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청나라 만주족 의복이 진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외국 문화의 특성이 더해져 문화적 의미가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치파오는 일반적으로 중화민국 때 개혁한 치파오를 의미한다. <그림36> 20세기에 치파오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고, 이 기간에 치파오의 스타일과 직물이 크게 발전하였다. 1930년대 말에 와서야 치파오 스타일이 고정되었고 양식도 다양해졌

다.

<그림35> 현대 당복(唐装)



(출처 : <https://image.baidu.com> )

<그림36> 현대 치파오



(출처 : <https://image.baidu.com> )

이를 통해 일본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외국 문화를 흡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고 기모노를 통해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며 현대까지 계승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축제나 결혼식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쇼핑할 때 기모노를 입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 한푸는 기모노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 전통의복의 상속 및 활용 측면에서 일본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확인을 했다. 급속하게 변화

하는 사회 환경에서도 일본인들은 이처럼 전통의복을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기모노는 전통의복으로서의 높은 가치가 사용되는 옷감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책정되기도 하고 특별한 그림을 기모노에 수놓을 경우에도 그만큼 시간과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모노는 전통의복이면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전통을 계승해온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기모노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반면 중국은 전통의복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일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3. 유사점과 차이점

#### 3.1 민족적 측면

일본은 혈통적·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야마토 민족(大和民族)을 비롯하여 소수 민족인 류큐 민족(琉球族)과 아이누 민족(阿伊奴族)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마토 민족은 일본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일본의 주요 민족이다. 여러 시대의 변화를 겪었지만, 야마토 민족의 통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의복도 그에 맞춰 단일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고, 쇼토쿠태자가(聖德太子)가 통치한 이후에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한푸도 이시기에 일본에 전파되어 야마토 민족의 특성에 맞게 기모노로 정착되고 발전하였다. 기모노의 발전은 줄곧 야마토 민족의 지배와 함께 전통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의 형태였다. 고대 민족은 흉노(匈奴)족<sup>57)</sup>· 선비(鮮卑)족· 거란(契丹)족· 돌궐(突厥)족· 여진족(女真族)의 다섯 민족으로 나뉜다. 이처럼 중국의 고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다원적 환경에서 왕조의 교체와 권력을 잡는 민족에 따라 한푸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는 일본 기모노의 발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신중국이 성립될 때까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만큼 전통의복의 단일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복잡한 민족 관계는 중국이 고유한 전통의복을 유지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3.2 지역적 · 역사적 측면

일본은 천도지국(千島之國) 즉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리고 국토면적의 75%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지는 약 20% 불과하다<sup>58)</sup>. 고대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였으며,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세계와 교류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중국과 달리 고유한 전통문화의 유지와 계승에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모노가 보존되고 유통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반면 중국은 영토가 매우 넓은 나라이다. 전체 면적은 약 960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3위이며, 국경과 접하는 나라도 많다. 앞서 말했듯이 다민족이다 보니 전통문화는 동일하지 않았으며 문화도 개성적이고 다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전통의복을 보존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리고 중국은 고대 3세기에 봉건사회로 진입하여 7세기에는 봉건사회의

57)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유목 민족을 말한다.

58) 신중대(2018) 『일본문화바로알기』 부경대학교 출판부 pp.12-13.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여전히 고분시대였으며, 그 사회적 형태는 중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다. 전통의복의 변화는 시대의 발전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일본 고분 시대에 출토된 하니와(埴輪)를 보면 이때의 의복 형태는 3,000년 된 중국의 마지아야오 문화(马家窑文化)<sup>59)</sup>와 유사하다. 중국전통 의복은 오랜 역사가 갖진 반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였다. 이에 비해 기모노는 역사적 발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복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sup>60)</sup>



---

59) 중국 신석기 시대 문화의 하나로 기원전 약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도기는 채도(彩)로 유명하다.

60) 芑(2014) 「中日服飾文化对比研究」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pp,17-18..

### Ⅲ. 결론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중국 한푸와 일본 기모노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 각 시대의 전통의복의 특징과 역사문화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한푸는 석기시대가 끝나고 섬유기술이 발달한 상나라부터 나타났고, 당·송·명나라 등 수십 개의 왕조를 거치며 3,000년 이상 발전해 왔으며 중국 한족의 전통의복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하지만 한푸는 청나라에 변발령(弁髮令)을 내렸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의 전통의복은 중국 한푸를 수용·모방하는데서 출발하였지만 헤이안시대-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인 전통의복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갔다. 이런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 발전된 기모노의 기본 스타일은 현대까지 이어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장에서는 당나라의 전통의복이 나라시대의 전통의복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당나라의 한푸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의복 양식이나 한푸의 원단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한푸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나라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의복양식이나 색상 등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는 기모노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현대 한푸와 기모노의 기능성을 비교·검토를 하였다. 기모노는 특별한 날은 물론 일상에서도 착용하여, 자신들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기모노는 미혼여성의 경우는 후리소데를 입고, 결혼 후에는 도메소데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규칙을 통해서 일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기모노는 장소와 용도에

맞게 착용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전통의복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실제로 전통적인 의복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요즘은 한푸부흥운동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전통의복인 한푸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푸는 끊임없이 진화 과정을 거쳐 왔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거듭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한푸는 전통의복에 대한 자부심과 계승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한푸과 기모노는 독특한 양국의 문화적 배경과 민족의 특성을 살린 의복이며 차별화된 형태고 문화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양국의 전통의복은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경제와 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계승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만큼이나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일은 문화와 경제 강국을 이루는 필수 요건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통의복이라는 고유문화를 지켜내는 일은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 의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쳤다. 이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관련된 논문과 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본 연구자의 문헌을 참고하여 중·일·한의 비교 연구는 향후의 연구계획으로 남겨놓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류은주(2003) 『모발학 사전』 광문각
- 강상원(2005) 『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 박진희 (2006) 『FASHION DESIGN』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이영·채석(2010) 『일본고중세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신중대(2018) 『일본문화바로알기』 부경대학교 출판부
- 井筒雅风(平成27年) 『日本服飾史 男性編』 光村推古书院
- 井筒雅风(平成27年) 『日本服飾史 女性編』 光村推古书院
- 高桥健自(2016) 『図説日本服飾史』 清华大学出版社
- 高春明, 周汎(1996) 『中国衣冠服飾大辞典』 上海辞书出版社
- 华梅(1999) 『中国服装史』 天津人民美術出版社
- 华梅(2001) 『服飾与中国文化』 人民出版社出版
- 机(2016) 『华夏衣冠』 上海古籍出版社
- 從文(2018) 『中国古代服飾研究』 中信出版社出版

### 논문

- 崔蕾(2001) 「中日文化交流看中国服飾对日本服飾的影響」 西北纺织工学院学报
- 정혜문(2002) 학위논문(석사) 「현대 중국여성의 한푸(漢服) 스타일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 진경옥 · 이민정(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일본·중국의 전통의상을 중심으로」 제5권제  
5호 『한국인류 사업학회지』
- 王聰(2006) 「近世日本町人与町人文化的特征考察」 文学教育
- 김화숙(2008)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 李侠(2008) 「浅谈家徽与日本文化」 安徽文学
- 戚畅(2008) 「日本人的婚礼」 东北亚外语研究
- 김경진(2009) 「기모노의 가타(型)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vol.10.no.6 통권3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 姜麗(2010) 「和服中的中国元素浅析」 重庆科技学院学报  
10.3969/j.issn.1673-1999.
- 李红梅(2012) 「立领的变化」 纺织导报
- 时安(2013) 「日本和服色彩研究」 广东工业大学硕士学位论文  
10.7666/d.Y2304632.
- 周鹏程 · 张春梅(2014) 「從传统服飾看中日文化的异同」 TS941.12 工程科技  
II辑; 工程科技 I辑 轻工业手工业.
- 陈娜娜 · 徐方杰 · 陈嘉毅(2015) 「漢·唐·明代汉服设计与对比」 纺织科技進步  
CNKI:SUN:SCFK.
- 임진(2016) 「중국 시대극 영화의상의 미적 특징을 활용한 한푸(漢服) 스타  
일의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회연구』 17  
권3호, 한국기초조형학회.
- 田边草苗(2010) 「中日传统服飾图案比较研究」 东华大学硕士学位论文
- 赵忠(2010) 「试论唐、日服飾文化的特点及其交流」 延边口丈学周页匕学位创  
扮文

田边草苗(2010) 「中日传统服飾图案比较研究」 东华大学硕士学位论文

苗芑(2014) 「中日服飾文化对比研究」 陕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인터넷 사이트:

<https://www.douban.com/note/249878266/>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248745118&qb=5bmz5a6J6KOF5p2f&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2&docId=248745118&qb=5bmz5a6J6KOF5p2f&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http://www.baidu.com/link?url=kdO-zufAQg4lcoa9bLlrUmm2bpdBSTqNJS cS4zhoq4iLxrm8ZZ3exXflc9rRhIUl560vjWFyEs0OImcDli-h1\\_&wd=&eqid=e b8b23210001d3f3000000065fb18fb1](http://www.baidu.com/link?url=kdO-zufAQg4lcoa9bLlrUmm2bpdBSTqNJS cS4zhoq4iLxrm8ZZ3exXflc9rRhIUl560vjWFyEs0OImcDli-h1_&wd=&eqid=e b8b23210001d3f3000000065fb18fb1)

[https://www.baidu.com/link?url=imn7Y4F45deE\\_-d4sA6avan9TPznF26JXs QTHZGv0fEcVDQP-tGKkGJoV3XhI5Vq74lBKKXeu5uCapVMTA9zKNVv 2q8VETT00sd3YSilyb\\_&wd=&eqid=bf613fe20003f9c3000000065fb18fd1](https://www.baidu.com/link?url=imn7Y4F45deE_-d4sA6avan9TPznF26JXs QTHZGv0fEcVDQP-tGKkGJoV3XhI5Vq74lBKKXeu5uCapVMTA9zKNVv 2q8VETT00sd3YSilyb_&wd=&eqid=bf613fe20003f9c3000000065fb18fd1)

<https://baike.baidu.com/item/%E6%B1%89%E6%9C%8D%E8%BF%90%E5 %8A%A8>

<https://baike.baidu.com/item/%E9%A9%AC%E9%9D%A2%E8%A3%99>

[https://tieba.baidu.com/f?z=419621711&ct=335544320&lm=0&sc=0&rn=30&t n=baiduPostBrowser&word=%BA%BA%B7%FE&pn=0&red\\_tag=23613953](https://tieba.baidu.com/f?z=419621711&ct=335544320&lm=0&sc=0&rn=30&t n=baiduPostBrowser&word=%BA%BA%B7%FE&pn=0&red_tag=23613953)

42